

# 2018 작은도서관 이야기

운영 주체별로 살펴본 작은도서관 추천 사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18

작은도서관 이야기



# 2018 작은도서관 이야기

운영 주체별로 살펴본 작은도서관 추천 사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공립 작은도서관

### I.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

- 010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 016 인창동작은도서관

### II. 위탁 운영 작은도서관

- 022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가창면 참꽃작은도서관
- 026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석수골 작은도서관
- 032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열린도서관
- 036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도담도담한옥도서관
- 042 지역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흥부네 작은도서관
- 046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 050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무지개작은도서관

## 사립 작은도서관

- 058 아파트 작은도서관 : 데시앙 책올터 작은도서관
- 066 시민단체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 072 사회복지법인 작은도서관 : 생명의전화사회복지관 생명가족작은도서관
- 078 재단법인 작은도서관 : 열린숲 작은도서관
- 084 교회 작은도서관 :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 088 개인 작은도서관 : 토성산맹공이작은도서관

## 기타

- 096 테마가 있는 작은도서관 :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 기부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지하철 내 작은도서관
- 109 작은도서관 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



## 들어가는 말

최근 생활형 SOC 관련 뉴스로 작은도서관계가 뜨겁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확대한다는 소식 덕이다. 넓고 폐쇄적인 공공 도서관을 북카페와 같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지역 특성을 살린 작은 도서관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이다. 작은도서관이 일종의 '도회청(都會廳)'이 되어 지역 중심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로만 끝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고개를 든다. 오랜 기다림 끝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운영 주체별로 나눠 정리한 이번 사례집이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도회청(都會廳)

동네마다 공용 가옥을 크고 넓게 지어 그 집에 모여 놀기도 하고(공동체 공간), 책도 있고(작은 도서관), 오락기구로 북·장구·팽과리·통소 등을 비치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도 하고 손님을 위로도 하는(다용도 공연장)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Part 01

# 공립 작은도서관

## I.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

-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 인창동작은도서관

## II. 위탁 운영 작은도서관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가창면 참꽃작은도서관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석수골 작은도서관
-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열린도서관
-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도담도담한옥도서관
- 지역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흥부네 작은도서관
-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무지개작은도서관



## 복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주민주도복합공간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하나의 건물 안에 도서관, 북카페, 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조성한 공간답게 소통을 통한 열린 운영 시스템을 구축, 지역 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관 이후 꾸준히 마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펼치며 공릉동 '도회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기도 하다.

### 운영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9길  
22, (공릉동) 공릉행복발전소

### 문의

전화: 02-976-3820  
blog.naver.com/grhappylib

### 북카페+도서관+아동센터+노인정을 한 곳에, 공릉 대표 복합문화복지센터

전 세대가 도란도란 어울려 사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동네이지만 주민들은 취약한 문화시설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인구수 대비 부족한 도서관은 지속적인 민원사항.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던 노원구청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화와 복지를 한데 모은 '행복발전소'가 건립된 배경이다.

공릉행복발전소는 공릉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701㎡의 규모로 조성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1층 북카페 및 경로당, 2층 도서관, 3층 지역아동센터가 배치되어 있다. 아이들의 돌봄부터 어르신들의 휴식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도회청'인 셈이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 만든 '소통형 공간'답게 내부로 들어서면 확 트인 천장과 전면 통유리 창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턱을 없애기 위해 설치한 폴딩도어 또한 공릉행복발전소의 특징. 평소에는 열고, 필요에 따라 닫는 형태로 개방감을 더한다.

공릉행복발전소는 주민주도형 열린 공간으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꾸려나가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용자가 운영자가 되고, 운영자가 이용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에 주민들은 도서관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 독서와 문화, 교육, 그리고 사랑방의 역할까지 지역중심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개관 이후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책과 함께 성장하는 꿈의 도서관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는 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향긋한 차와 수다가 함께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전 시간 도서관은 책을 만나고 사람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준다. 특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들과 조부모들은 이곳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교류하며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변신한다. 놀이터를 사이에 두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붙어있어 자연스레 도서관으로 '퇴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난 아이들과 엄마들은 '도서관 친구'가 되어 특별한 우정을 쌓아나간다.

각자 자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힘들어하던 엄마들은 '책 품앗이'를 결성,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책을 읽어주고 나머지 엄마들은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엄마들에게는 육아 해방을 선사하는 도서관에서의 만남.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은 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독서돌봄 마을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해주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릉도서관은 지역대표 문화공간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CHINA는 지금', 전래동화 속 숨은 이야기를 살펴보는 '한국 전래동화의 이해', '한국사북아트', '세계문화여행산책' 등이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나는 독서왕이 될거야!'이다. 목표 권수를 설정하고, 완독할 때마다 '나만의 옥수수'를 건네받아 노란빛 알갱이를 채워 넣으면 독서왕이 된다. '나는 독서왕이 될거야!'는 비단 아이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서 데스크로 다가와 "선생님 저도 책 다 읽었어요" 하며 옥수수를 채워나간다. 옥수수 낱알이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창구가 되어주는 것. 이에 담당 사서는 가능한 모든 독서왕 참여자들을 기억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려 노력한다. 책 읽는 재미에 사서선생님과 소통하는 재미가 더해져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릉 독서왕. 나날이 느는 옥수수 열매만큼 독서량도, 사람 간의 정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 밖에도 도서관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극장으로 활용한 우리마을 소극장에서의 '영화상영회', 사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책을 만들어보는 '나도 그림책 작가다', '공행 우리동네 베풀시장' 등이 준비되어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용자 교육과 책 놀이로 이루어지는데, 대기가 많아 예약제로 시행된다. 활발하게 운영되는 독서동아리도 공릉도서관의 자랑이다.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독서토론투', 청소년의 시선으로 공릉동의 소식을 전하는 '공행청소년기자단', 엄마들의 책모임 '그림책 읽기' 등이 대표적인 예. 특히, 유치원 견학이 있을 때면 두 팔 걷고 도와주는 '그림책 읽기' 회원들은 도서관 운영의 큰 힘이다.

주민주도형 도서관답게 공릉도서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공릉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동네 인맥을 모으고 모아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손녀딸 손붙잡고 도서관에 책 읽어주러 왔다가 문학박사 정체가 탄로(?)나 '한국 전래동화의 이해' 강의를 맡게 된 할아버지, 도서관에서 이야기하다 아이들을 위한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곤충박사, 타고난 손재주를 살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책놀이를 펼치는 엄마들. 이렇게 공릉도서관은 인적네트워크의 보고가 되어 '사람책'을 축적해간다.

## 공릉동의 지속 가능한 행복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공릉행복발전소 공릉도서관.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구현을 위해 늘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0명을 돌파하고 있다.

공릉도서관은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사랑방이자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현재 공릉도서관은 사서직 1명과 14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주 6일 평일 기준 9시간을 사서 1명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전담 직원 1명이 도서관 관리, 각종 공문 처리는 물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섭외하며, 직접 진행도 한다. 자원봉사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과 도서관에 대한 애정으로 일하고 있지만, 오가는 차비조차 자비로 해결해야 하다 보니 봉사를 오랜 기간 지속하기 벅겁다. 실행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적인 영역인 도서관이 주민들의 봉사와 수고로 유지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프로그램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점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봉사자들의 인맥과 북카페 수익금에 기대 운영하는 실정이라, 강의료는 고사하고 변변한 식사 한 끼 대접하기도 어렵다. 열심히 일해주신 북카페 봉사자들에게도 한없이 죄스러운 심정이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공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도회청이 풍족하진 않아도 쪼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공릉동의 행복 발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리 동네 문화발전소 인창동작은도서관

인창동작은도서관은 구리시 인창동 아름마을에 위치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파트 밀집 지역임에도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인창문화센터 2층에 마련됐다. 개관 이후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며, 지역 대표 문화사랑방으로 자리하고 있다.

### 운영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휴관)

### 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37 인창  
문화센터 2층

### 문의

전화: 031-550-2852  
www.gurilib.go.kr

## 아름마을 아이들의 든든한 책 친구

단순 생존을 넘어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 향상의 시대를 맞아 책과 문화, 복지 공간은 도시 계획의 필수적 요소가 됐다. 인창동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구리시는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인창동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치되다시피 한 옛 사회복지관 자리에 문화센터를 조성했다. 5층으로 이루어진 인창문화센터는 1층 관리실과 맘카페대기실, 2층 작은도서관, 3층 보육정보센터 및 강의실과 공부방,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맘카페), 5층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보다 윤택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인창동작은도서관이 생긴 후 아름마을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는 큰 폭으로 향상됐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책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무색할 만큼 다둥이 자녀가 흔한 아름마을 특성상 아이들과 엄마들의 만족감은 대단했다.

“도서관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초등학생인 첫째는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도서관에서 저를 만나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둘째는 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저도 육아 동지들을 많이 얻었고요. 여기 있는 셋째는, 언니 오빠 덕에 갓난아이 때부터 도서관에 자주 와서인지 책을 좋아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파트 단지 주변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인창동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층은 역시 어린이들이다. 오전에는 주로 어르신들, 아이를 육아기관에 보낸 엄마들이 조용히 들러 책을 보고, 오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도서관에 오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일단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새 책도 많은 편이고요. 엄마가 일하러 가서 좀 그랬는데, 여기서 놀다가 학원 가면 되니까 무섭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도서관에 와서 놀 거예요.”

이처럼 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아이들 덕에 인창동작은도서관은 늘 북적북적 아이들 책 읽는 소리로 가득하다. 방학이 되면 도서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방학 특강 문화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아이들,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도서관 문 열기만 기다리는 아이들 덕에 도서관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흘러간다.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책 친구로, 엄마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육아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인창동작은도서관.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반을 다지며 오늘도 아름답게 삶의 질을 견인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집 앞에서, 체계적인 분관 시스템

인창동작은도서관은 250㎡(약 76평) 면적에 1만 3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 작은도서관로서는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는 유아열람실, 도서자료실, 비도서 열람공간, 검색 공간 등으로 알차게 구성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3층에 별도로 공부방을 마련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 책 놀이터로 이용하는 아이들과 공부공간이 필요한 수험생 모두를 배려한 공간활용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 덕에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내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책을 가까이한다.

인창동작은도서관이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책 읽는 구리시를 만들고자 한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숨어 있었다. 지자체의 의지가 있었기에 체계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영 인력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8년 기준 인구 수 20만 명인 구리시는 현재 세 곳의 공공도서관과 다섯 곳의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본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리프로그램 또한 본관과 같은 KOLASⅢ를 사용하고, 작은도서관으로서 드물게 RFID도 구축되어 있다. 도서 등록은 물론 장비작업까지 토평도서관에서 마무리하여 보내주기 때문에 본관과 다를 것이 없다. 면적과 장서 수 차이만 있을 뿐 공공도서관과 모든 시스템이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휴관일 또한 권역별로 겹치지 않도록 분배했다. 본관인 토평도서관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하고, 분관인 인창동작은도서관은 첫째, 셋째, 금요일 쉬는 형식이다.

“인창동작은도서관은 말만 작은도서관이지 큰 도서관이랑 차이가 없어요. 책도 그렇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요. 100% 만족합니다. 인창동작은도서관 때문에 이사 못 가겠다는 엄마들도 많은걸요.”



운영인력이 모두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인 것도 인창동작은도서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문헌정보학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서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어 전문적인 참고 봉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설계해 나간다. 아동 대상 책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작은도서관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꾸리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체계화된 도서관 관리 시스템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인적 자원, 인창동작은도서관이 공립작은도서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다.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성공사례는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에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2019년 1월 기준 전국 6,500여 개가 넘는 작은도서관 중 구리시 소속 작은도서관은 15개소에 불과하다. (공립작은도서관 5, 아파트작은도서관 4, 그 외 사립도서관 6) 인접한 시의 작은도서관이 100여 개가 넘는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서관 만족도는 높다. 이는 맹목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 작은도서관이 건립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 문화 사각지대 없는 아름마을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체계화된 도서관 분관 시스템 덕에 개관 이후 탄탄한 운영을 자랑해온 인창동작은도서관. 앞으로는 문화 사각지대 없는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특히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도서관에 자주 와요. 그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님데, 아무래도 주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의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곁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하곤 하죠. 그렇다고 책 읽으러 온 이용자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또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는 사서, 지자체의 지원, 체계화된 시스템이 결합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인창동작은도서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책과 문화의 향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름마을을 든든히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



## 책을 만나 삶이 꽃 피다! 가창면 참꽃작은도서관

가창면 참꽃작은도서관은 주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책 읽는 달성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2013년 조성 이후 달성군립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독서문화를 이끌고 있다. 개관 준비에서부터 전문 사서가 참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보이며 2017 전국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운영

평일 09:00 ~ 20:00  
토요일 09:00 ~ 17:00 (일요일 휴관)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8

### 문의

전화: 053-760-7731  
<http://dsycc.kr>

### 가창면을 아우르는 독서, 문화, 소통의 중심 공간

가창면 참꽃작은도서관(이하 참꽃작은도서관)은 달성군 가창면에서도 유동인구 많기로 유명한 가창로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04.4㎡(약 92평), 장서수는 총 1만 3천여 권이며 도서관 내부는 각기 다른 생활 패턴을 지닌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일반열람공간,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공간, 공부방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개방,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 평균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PC방 보다 도서관을 가까이하며 책과 함께 성장한다.

참꽃작은도서관은 주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골자의 '한 마을 한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로 탄생한 공간이다. 달성군은 읍면별 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11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이중 8개관은 달성군립도서관과 연계된 분관 개념의 도서관으로 회원가입 하나로 모든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달성군 공립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190㎡, 장서는 1만 권 이상으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뛰어넘는 우수한 시설과 자료를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참꽃작은도서관은 2017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책 읽는 달성을 대표하는 작은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 참꽃작은도서관의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참꽃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여느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유아와 초등학생이다. 특히 방학기간 어린이실은 그야말로 북적북적. 가창면 어린이들은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들러 책을 보고 친구를 만나며 건강한 하루를 보낸다.

"엄마도 아빠도 일하러 가고 언니도 학원 가서 바빠 심심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도서관에 오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있어서 안심이에요. 지루하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중간에 학원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도서관에 있어요."

참꽃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일주일을 짝 채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월요일 책이랑 글이랑, 화요일 한걸음 쑥 내딛자 영어 그림책 속으로, 목요일 도서관 속 작은 영화관, 금요일 미술 퍼포먼스, 토요일 자기표현능력을 기르는 미술상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은 집보다 재미있는 도서관에서 책 속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친구를 만나 지루함을 달란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엄마를 대신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준다. 부모들 또한 참꽃작은도서관이 있어 안심이다.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TV 보고, 휴대폰 게임하고, PC방에 가서 살았을 텐데, 참꽃작은도서관 덕에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도서관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도서관 때문에 이사 못 갈 것 같아요."

이렇듯 가창면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참꽃작은도서관이지만 중고생들의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교에 학원에 도서관에 들릴 여유가 없기 때문. 그나마 남은 시간에는 책보다는 게임에 몰입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참꽃작은도서관 측은 이를 해결하고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 등을 펼치며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꽃작은도서관이 모범적인 운영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 개관 준비에서부터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 장서 관리부터 프로그램 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해졌다. 참꽃작은도서관의 사서들은 사서이면서 동시에 달성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로 도서관 운영 전문 지식에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은 이에 멈추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통해 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품교육도시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국적인 지방 인구수 감소에도 해마다 큰 폭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며 전국 군단위 인구수 1위를 달성했다. 달성군의 사례에서 보듯 사람을 붙잡는 힘은 책과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개관 6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장소로 자리잡은 참꽃작은도서관. 달성군을 상징하는 비슬산 정상에 핀 참꽃처럼 소담스런 문화공간으로 오래오래 주민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본다.



## 석수골을 밝히는 보물 같은 문화공간 석수골 작은도서관

석수골 작은도서관은 문화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안산시 선부동 어린이들의 독서진작을 위해 2010년 건립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석수골 주민들은 이곳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책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간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사서들의 노력을 근간으로 2017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

### 운영

화~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길 20 2층

### 문의

전화: 031-439-2707  
<http://cafe.daum.net/suksugol>,  
<https://band.us/band/62338109>  
 카카오프러스친구 - '석수골작은도서관' 검색

## 석수골의 포근한 책 놀이터

오래된 빌라 단지로 구성된 안산시 선부 2동. 여느 주택가와 다를 바 없는 골목을 걷다 보면 낯설지만 기분 좋은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주민들이 손수 일궈낸 푸르른 정원과 석수골 공원 초입에 위치한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듯 반가움을 안겨준다. 제법 큰 규모의 2층 건물이지만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서관의 실제 면적은 242.12㎡(73.37평)이다. 장서는 총 1만 5천여 권, 열람석은 총 35석이며 프로그램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운영은 YMCA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상위에 들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도서관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찬 임은아 관장 이하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 석수골의 사서들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자녀를 보듬는 마음으로 대한다. 덕분에 석수골 작은도서관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마성의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입소문 나 있다.





###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녀'들의 도서관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운영진은 호칭부터 남다르다. 아이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관장님, 사서 선생님이라는 명칭 대신 행복을 주는 '마녀'이길 자처한다. 도서관 내에서 임은아 관장은 키크마녀, 이하 운영진은 희망마녀, 나비마녀, 초록마녀, 모모마녀로 통한다.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마녀와 부대끼며 운영진을 엄마처럼 편안하게 대한다. 마녀들은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달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수시로 '키크마녀와 함께 책 읽기', '백 권 도전! 나도 백 권 읽을 수 있다' 등을 진행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느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석수골 작은도서관 또한 오전 시간은 엄마들이, 오후 시간은 아이들이 주 이용자이다. 맞벌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돌봄 공백 시간을 이용해 드나드는 어린이 이용자 수도 제법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관리 직원은 관장 포함 상근직 2명과 주말

인력 1명이 전부다. 총 3명 만으로 주 6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벽철 만도 하지만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은 힘들다는 내색 대신 아이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지 않고 안전한 도서관을 찾아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석수골 작은도서관은 이처럼 이용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녀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빛나고 있다.

###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일주일은 아이디어 넘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화요일 친환경 농부와 함께 도서관 앞 텃밭에 농사를 지어보는 '어린이 농부', 수요일 요리를 통해 마음을 키우는 '푸드아트테라피'와 '어린이사서', 목요일 신나는 과학교실, 금요일 '블록방'과 '소품만들기', 토요일 역사가 숨 쉬는 장소로 체험 학습을 떠나보는 '역사탐방', 일요일 청소년 재능기부 미술놀이 '크레용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놀이' 등이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석수골 예술놀이터'를 개최하기도 했다. 어린이책식당, 공연놀이터, 전래놀이터, 체험놀이터, 주민예술놀이터, 책놀이터 등 참여, 놀이, 나눔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석수골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이스브레이크 게임을 배워보는 '마음을 여는 아이스브레이크', 수요일에는 '그림책동아리'와 우쿨렐레 동아리 '뿌리 깊은





나무', 목요일에는 '일러스트 그리기', 금요일에는 책 토론 동아리 '꿈찾사'와 '흥미진진 한국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도서관에서의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동아리를 만들고, 꾸준히 실력을 닦아 전문가로 성장한다. 도서관이 자기계발의 장이 되어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이처럼 신선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트워크의 힘'이 숨어 있었다. 지역 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얻고 우수 강사진을 초빙했다. 실제로 '어린이농부' 시간에는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 선생님이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농사 기법을 알려주고, '푸드아트테라피' 시간에는 YMCA 활동으로 이름난 강사진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친구관계 힐링스토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독서지도 전문가가 강의 시간에 써 내려간 석수골 아이들의 시를 모아 동시 모음집 '친구 로그인!! 절교 로그아웃!!'을 출간하기도 했다.

### 책 읽는 석수골을 만들기 위한 노력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앞으로의 과제는 '책 읽는 석수골, 책 읽는 안산 만들기'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핸드폰에 매몰되어 책 읽는 인구가 현격하게 준 것을 느낀다는 임관장은 어떻게 하면 게임과 유튜브에 집중된 아이들의 관심을 책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어릴 때 독서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에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책 배달부 부릉이 프로젝트'이다. 바느질 모임에서 만들어준 부릉이 인형에 바구니를 설치하고 책을 넣어 전달하는 릴레이 이벤트로 안산 시내 곳곳을 누비며 책 읽기 운동을 선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근에 위치한 석수초등학교와 연계해 마을 차원의 독서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지루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드게임을 대여해주고, 여름방학에는



물총놀이, 겨울방학에는 연날리기를 하며 몸으로 놀아주고자 한다. 공원 옆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생태 체험,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역사탐방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모두 아이들을 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석수골 작은도서관의 큰 그림. 체험 전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전교육 시행은 필수다.

석수골 작은도서관은 지금에 멈추지 않고 더 큰 비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의 다양한 SNS 채널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도서관의 내일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사랑방으로 포근한 책 보급자리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석수골 작은도서관. 앞으로도 정이 넘치는 공간, 문화가 흐르는 보물 같은 공간으로 석수골을 오래오래 지켜주길 바라본다.



## 지하철과 연결되는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 열린도서관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공간이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와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대신 책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서관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간다.

### 운영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 ~ 17:00 (일요일 휴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포  
바타워 지하2층 스마트정보관 내

### 문의

전화: 02-6004-3970  
<http://yllib.gangnam.go.kr/>



### 책과 함께하는 출퇴근길을 돕는 독서 창고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를 빠져나와 지하 2층에 도착하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에스컬레이터 앞 숨은 공간 사이 지하철 역사 속 문화 오아시스 열린도서관이 빼꼼 고개를 내밀기 때문이다. 열린도서관은 출·퇴근길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사는 현대인들이 책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남구에서 조성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내 독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문화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08년 개관한 열린도서관은 본래 강남구청 본관 1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2년 구청 내에 스마트강남정보관이 생기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재개관 후 탁월한 접근성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더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열린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운영으로 시민의 삶 속 일상의 도서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오전 시간 열린도서관의 주 이용층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아이 엄마들이다. 지하철만 타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에 있어 꽤 멀리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는 직장인들,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은 이용자들에게도 요긴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오후에는 아이들의 방문율이 높다. 이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강남구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 해 오후 6시가 되면 퇴근길 읽을 책을 빌리기 위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해진다. 높은 접근성으로 상호대차서비스 이용도 많은 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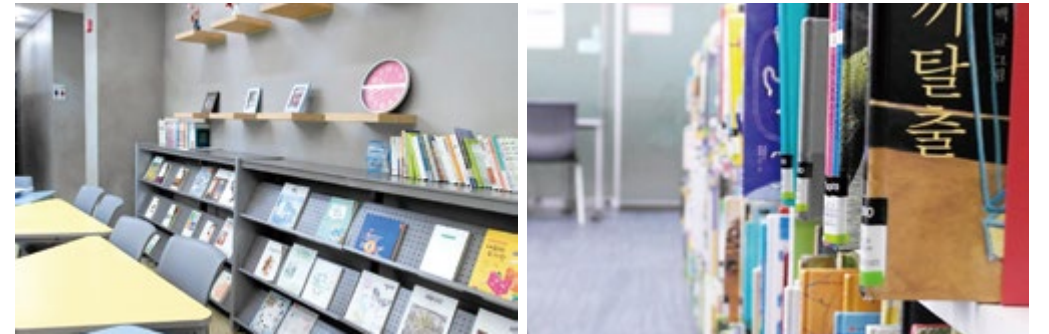
## 도서관에서 삶을 공부하다

열린도서관은 지속적인 배움과 소통이 가능한 동아리 구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전 계층이 책과 문화를 매개로 모이는 도서관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환의 하나로 시행 중인 4W 러닝데이 도서관 평생 공부 동아리구성 프로젝트 ‘도서관에서 삶을 공부하다’는 열린도서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동양의 상상력 보고 서유기를 인문학적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동화작가가 되어 삶을 담은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 4W 러닝데이

언제(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누구나(Whoever), 무엇이든(Whatever)(4W) 배울 수 있도록 매 월 넷째 주 수요일(4th)을 4W 러닝데이로 지정하여 배움에 대한 접근 장벽을 해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 주최 문화 사업

목요일 오전 진행되는 ‘매직트리하우스 읽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영어강의 경력이 있는 열린도서관 관장이 직접 진행하는데, 친근하면서도 알찬 강의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 나기도 했다. 매직트리하우스 동아리 회원들은 도서관을 통해 처음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족 같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 밖에도 성인 독서토론 모임, 도전 천 권 읽기, 아이에게 들려줄 오디오 동화 쓰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여력이 닿는 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열린도서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있다.



## 강남구립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주제별 북큐레이션

강남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는 2015년부터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여 ‘분담수서’를 시행하고 있다. 열린도서관은 이 중 사회과학(300) 분야를 맡아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분담수서를 통해 한정된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장서구성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립도서관은 이에 멈추지 않고 이용자들의 독서를 돕기 위해 북큐레이션 ‘월간 강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의 주제 ‘쉽표’로 꾸린 북큐레이션에서 열린도서관은 ‘나를 찬찬히 보다’라는 울타리 안에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등 10권의 책을 선정하기도 했다.

평생학습의 장이자 동네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열린도서관은 강남구청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독서생활을 돕기위해 오늘도 쉽표가 달리고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며 떨어진 책, 출·퇴근길만이라도 기계 화면이 아닌 종이에 찍혀진 활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강남구청역을 지나게 된다면 잊지 말고 열린도서관의 문을 두드려보자. 당신의 든든한 독서 동반자가 되어줄지도 모르니 말이다.



## 책으로 이웃을 만나 마음을 나누는 지혜의 통로 도담도담한옥도서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 종로구에 가면 한옥의 감성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문화 공간이 있다. 일상적이어서 조금 더 특별한 곳,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이다. 송인동 골목 사이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도담도담한옥도서관에는 책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람 사는 정이 스며 있다.

### 운영

평일 10:00~19:00  
주말 10:00~18:00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길 43 도담도담한옥도서관

### 문의

전화: 02-928-1133  
<http://lib.jongno.go.kr>

## 한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종로구 송인동 골목 사이를 누비다 보면 주변과 어울리는 듯 조금은 특별한 한옥 한 채가 등장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일까? 궁금증에 들여다보니 뜻밖에 책 향기가 스친다.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 같은 정겨움으로 가득한 공간, 바로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이다.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재개발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가옥을 지키고 지역 내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종로구에서 조성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본래 한의원으로 쓰이던 지금의 건물을 구입해 도서관으로 만든 후 새마을 종로구 지부에 운영을 위탁했다.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때문에 영하를 넘나드는 한파에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용자를 기다린다. 책과 이웃을 만나는 곳이니만큼 스스로 없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대문을 넘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면 소담한 마당이 펼쳐진다. 정갈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을 위해 심어놓은 듯한 꽃과 채소가 살아있는 도서관임을 짐작케 한다. 한옥의 온돌을 그대로 살려 한겨울에도 뜨끈함을 자랑하는 바닥은 한옥 도서관만의 강점. 좌식 책상에 기대 책을 읽고, 때로는 텃밭 텃밭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들의 표정에서 한없는 여유가 느껴진다.

“다른 도서관도 가봤지만 이곳만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온돌바닥에 좌식책상이라 편안하고, 마당이 있어 답답하지도 않고요. 책 읽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도 이곳에 오면 여러 권 똑딱 읽더라고요. 한옥과 책, 그야말로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한옥 체험하기 힘든 요즘 아이들에게는 옛이야기 속 시골집 놀러 온 듯한 정겨움을, 어른들에게는 치유를 선사하는 도담도담한옥도서관. 그렇게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한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을 바탕으로 승인동 독서문화를 이끌고 있다.



### 책과 사람, 기본에 충실한 도서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처럼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본래 어린이를 주 이용층으로 설정한 공간이었다. 개관 이후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승인동 아이들이 내 집처럼 드나들며 책을 읽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특화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일대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도담도담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속속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동네 유일한 학교였던 승신 초등학교마저 신입생 부족으로 왕십리로 이

전하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아이들마저 취학할 때가 되면 보다 통학이 용이한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다. 바로 옆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 또한 학교 갈 즈음이 되면 으레 이사를 갔다. 초등학생이 사라진 승인동,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필요했다.

“승신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어린이 이용자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변화를 실감했죠. 아이들 위주로 구성하던 장서와 프로그램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용자 구성을 살펴보니 평일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 오후 4시부터는 하원한 어린이집 아이들, 주말에는 SNS 인증샷을 찍으러 온 젊은이들이 주였다. 전 세대가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셈. 이에 어린이 위주 프로그램보다는 도서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서, 사람, 공간에 집중기로 했다. 가장 먼저 손본 곳은 서가였다. 유아동도서 비율을 줄이고 성인도서를 확충했다. 그중에서도 오전 시간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그들이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책을 구비하는 데 신경을 썼다. 결과는 대성공. 도서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던 책을 여기서 만난다며 반가운 마음에 대출해가기 시작했다. ‘추억의 책’ 덕에 이용자들은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을 이끄는 조성희 관장과 스스럼없이 책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이용자와의 소통은 공공기관 친절도 조사 상위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책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향긋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꽃차소믈리에 자격증을 소지한 조 관장이 직접 만든 꽃차 향이 도서관을 싱그럽게 감싼다.



맛 또한 훌륭해서 SNS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한옥 특유의 정감 어린 분위기와 책, 꽃차 덕에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책으로 이웃을 만나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

“정답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책과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조건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용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서관 마다의 특징을 살린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집에 온 듯 편안한 공간에서 아름다운 문장을 꺼내 읽으며 마음을 여는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마을의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종로 구립 작은도서관으로 새마을회 종로지부 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는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독서를 확산하고자 생겨난 운동으로 회원들이 스스로 책을 모아 관리 운영하는 자율적인 독서운동이다. 1961년 마을문고 보급회로 창설, 1983년 새마을문고 중앙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존 새마을문고는 회원들이 순서를 정해 2~3시간씩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새마을회 회원이자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정을 수료한 조성희 관장 1인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예전에야 책이 부족해서 독서를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서관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문고는 몇 시간씩 돌아가며 도서관을 지키는 형태이다 보니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책임자가 확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전통적인 새마을문고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이지만, 희생과 봉사라는 새마을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한옥 관리를 위해 개

관 시간 훨씬 전 출근해 도서관을 쓸고 닦는 것, 빠듯한 운영비에 교대 인력이 없어 도서관 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일상, 도서관 업무 외 새마을지회 행사 참여에 대한 요청도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이겨내고 있다. 무보수 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고 있다. 프로그램 또한 재능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플로리스트와 도시농업전문가 경력이 있는 조성희 관장이 리디아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한 ‘텃밭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고계련 작가가 운영하는 ‘벗글씨 교실’, 매월 1, 3번째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송동현 시인의 ‘시창작교실’ 등이 순수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힘들다고 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겠지만, 저를 비롯 재능을 나눠주신 선생님들 모두 사회에 나눔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웃에 봉사하겠어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날까지는 힘을 내어 볼 생각입니다. 또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인지 책 보러 오는 이용자가 없으면 몸이 아파요. 맡겨진 소임이라 생각하고 이웃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구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책 그리고 사람이 만나 마음을 토닥이는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의 더 큰 날갯짓이 기대되는 이유다.



## 웃음꽃 가득 그림책 천국 홍부네 작은도서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홍부네 작은도서관은 마을 내 독서문화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오류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성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지역 유휴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마을 공동체 '그림책 꽃밭'에 운영을 위탁했다. 2016년 개관 이후 '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주민 교류의 장이자 아이트로서의 역할을 통해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 운영

평일 10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일요일 휴관)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1길 30

### 문의

전화: 02-2060-1742  
<http://blog.naver.com/hongane0>

## 오류동의 선물 같은 공간 '그림책 꽃밭'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빼빼한 빌라촌 사이, 오류지구대를 끼고돌면 고개를 내미는 곳이 있다.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붙여 만든 공간이지만, 삭막함은 커녕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기가 가득한 홍부네 작은도서관이다. 마을을 사랑하는 이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꾸며진 홍부네 작은도서관은 주택 밀집 지역 속 숨통을 틔워주는 선물 같은 공간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홍부네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그림책 모임'에서 부터였다. 홍부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그림책 꽃밭'은 2012년 고척도서관 옆 북카페에서 김미자 초대 관장이 시작한 독서 동아리로 뜻이 맞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며 글을 쓰던 모임이 지역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답게 홍부네 안에는 양질의 그림책이 가득하다. '그림책에 흔들리다'의 저자 김미자 초대관장을 비롯, 현 이남지 관장 이하 운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책 한 권도 허투루 들이는 일 없이 신중하게 수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수 늘리는 데에 급급해하지 않고 보물 상자에 값진 보석을 모으듯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양질의 도서만을 구입하고 있다. 그림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삼척 그림책 축제'에 그림책 전문 도서관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수시로 진행되는 북큐레이션 또한 홍부네의 무기. 매월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진과 회의를 거쳐 꾸민 '이달의 책'과 어린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홍부네 어린이가 추천하는 그림책' 등이 홍부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홍부네 어린이가 추천하는 그림책'은 몇 달 씩 제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운영진들의 다양한 시도 덕에 홍부네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어린이가 없다. 책 읽기가 지루하다고 입을 삐죽 내밀다가도 이내 그림책 속에 빠져들게 되는 곳, 홍부네 작은도서관만이 가진 힘일 테다. 아쉬운 점도 있다. 도서관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검색이 힘들고, 복본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 홍부네가 풀어가야 할 숙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오류동의 안식처

홍부네의 운영진은 모두 오류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주부들. 때문에 도서관 구석구석 엄마의 마음이 묻어난다. 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조명도, 도서관용 게시판도 모두 그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화장실 벽까지 꾸며놓는 세심함에서도 사람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도서관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텃밭을 일궈 다 함께 김장을 하고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곳, 홍부네 작은도서관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도서관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은 2주에 한 번 씩 소집되는 운영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는데, 그림책을 통해 속 마음을 터놓고 상처를 치유한 사이들이어서인지 의견 조율에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누구나 스스럼없이 들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곳, 봉사자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곳, 홍부네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 배우고 나누는 소리 가득,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되면 도서관은 더욱 활기를 띤다. 월요일에는 '생각 키우는 그림책 읽기', 수요일에는 '엄마랑 아기랑 재미 가득 책 읽기', 목요일에는 '짱짱 글쓰기', '까투리 선생님과 즐거운 그림그림', 토요일에는 '애들아! 책 읽기 도와줄게', '그림책 읽고 따라 그리기' 등이 운영된다. 여력이 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그녀들. 홍부네의 아이디어 뱅크는 고갈될 틈이 없어 보인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바로 재정 문제일 것이다. 홍부네 작은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현실에 부딪칠 때면 한계를 느끼곤 한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도서관 내 카페도 수익 저조로 지난해 접은 상황. 현재는 약간의 지원금과 운영진들의 외부 강의로로 허리띠를 졸라매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에 대한 사랑 하나로 버티고 있는 활동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에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은 내실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마을 모임과 연계하여 동네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다는 홍부네 작은도서관. 그녀들의 바람처럼 그림책 꽃밭에 예쁜 꽃이 활짝 피길 소망해본다.







## 도심 속 맑은 책의 향기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북악산 자락 삼청공원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2013년 북촌주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의 휴식과 문화 향유를 위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매점을 도서관화했다. 공원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십분 활용, 책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 형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운영

화~일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00~20:00 (월요일 휴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34-3

### 문의

전화: 02-734-3900  
lib.jongno.go.kr



### 자연이 품은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삼청(三靑)이라는 이름 그대로 물과 숲,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다는 북악산 삼청공원을 누비다 보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하고도 따뜻한 공간,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이 빠끔 얼굴을 내민다.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은 공원 내 매점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숲속에 자리한 도서관답게 건물 목조는 물론, 서가, 책상, 의자까지 모두 자작나무로 마감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부에서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3년 3,000권의 책으로 시작, 현재 7,500여권의 장서량을 자랑할 만큼 작지만 작지 않은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햇빛 샤워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전면 통유리 좌식 열람석이다. 바닥에 온돌을 설치해 한겨울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의 행복함이 소환되는 곳. 블루 라이트에 지친 눈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곳,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꾸려나가고 있는 곳,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이다.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북 카페형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원 속에 자리한 도서관의 특성상 컴퓨터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운영진은 이왕하는 거 제대로 된 맛을 내보자 의기투합, 여느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맛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커피뿐 아니라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이곳은 이용자들에게는 만족을, 관리자들에게는 운영 수익을 안겨주는 북 카페형 작은도서관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 북촌을 사랑하는 마을 공동체, '북촌인심협동조합'

현재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북촌인심협동조합으로 2013년부터 위탁을 맡고 있다. 북촌인심협동조합은 조용했던 삼청동이 점점 상업화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에 소외감을 느끼던 주민들이 2012년 정정아 초대관장을 중심으로 하나 둘 모여 조직한 공동체다. 마을을 위한 활동을 구상하던 중 삼청공원 내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동네 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해보자' 의견을 모아 공모사업에 뛰어들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사서, 교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 회의하고 토론하며 서류를 준비했다. 자정을 넘기는 것은 예삿일이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이겨내며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입찰에 성공, 당당히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북촌인심협동조합은 도서관 운영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소임도 다하고 있다. 현재는 16명의 아이를 키우는 지역 어머니들이 시간을 조율해 도서관을 책임, 일과 가정 양립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 삼청공원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역사 프로그램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심 속 생태와 역사의 보고인 삼청공원의 특성을 살려 숲 체험 및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나는 역사교실'은 초등 2,3학년을 대상으로 책놀이도사가 직접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북 아트 활동을 해보는 수업으로 개관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숲 체험장을 활용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에서 놀자' 또한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만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성인 대상으로 보태니컬 아트 세밀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소란스럽고, 힐링하러 오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터져나왔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서 꼭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나?' 자문하게 되었고, '우리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라 알차게 운영하자' 의견을 모아 역사, 숲, 그리기 프로그램만 남기고 대폭 축소한 상태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선택과 집중'의 문제. 무조건적인 프로그램 확대보다 관에 맞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섬세하게

100% 엄마로 주부로 구성된 북촌인심협동조합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운영진. 그렇기에 도서관 구석구석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묻어있다. 엄마이기에 건강까지 생각, 페인트까지 모두 친환경으로 마감하여 화학적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도서관을 만들어냈다.

본래 계획에 없던 도서관 내부 유아용 화장실을 만든 것도 엄마들이었다. 어른들은 도서관 밖 공원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마음으로 의견을 적극 피력, 결국 실내 어린이용 화장실을 만들었고, 덕분에 아이들은 편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도서관을 완성할 수 있었다. 공동체 교류의 장이자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온전한 휴식을 안겨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북촌의 자랑거리, 삼청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오래도록 삼청동의 소확행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 웃음꽃 넘치는 원산 마을 문화 사랑방 무지개작은도서관

목포시 원산동 아파트 숲 사이를 지나다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살포시 발길을 멈추게 되는 곳이 등장한다. 연산주공아파트를 살기 좋은 문화 중심 마을로 만든 1등 공신, 무지개작은도서관이다. 연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자리한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마을 대표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운영

화~일 09:00~19:00 (월요일 휴관)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원산동, 연산주공아파트) 3차 관리  
사무소 2층

### 문의

전화: 061-278-6316  
www.mokpolib.or.kr

## 원산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행복한 책 놀이터

무지개작은도서관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목포시 1동 1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원도심에 속하는 원산동 일대는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시설이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던 것이 사실. 그러나, 1동 1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무지개작은도서관이 조성된 뒤에는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신도심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면적은 119㎡ (약 36평), 열람석 20석, 장서는 총 7,900여 권이며 '원산동 무지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늘 시끌시끌, 열람실의 환한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0시간 문을 열고 있어 무지개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이나 약속 없는 주말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 부모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한 도서관에 있으니 안심. 아파트 안에 믿음직한 도서관이 있어 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서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지 상상이 안돼요. 무지개작은도서관은 연산주공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랍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도시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원산동 주민들을 무지개작은도서관으로 인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 책 읽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무지개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을까' 늘 연구하고, 고민의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용시킨다.

대표적인 상시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3권을 읽으면 스티커 1장을 주고, 스티커판에 31장을 모으면 동네 문구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선물로 주는 '책 읽기 칭찬 스티커 모이기'가 있다. 예상대로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 스티커 모으는 재미에 무지개의 아이들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수시로 '독서퀴즈'와 '도서대출이벤트'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책 읽기를 독려하고 있다.

1년 단위로 '독서마라톤'도 진행한다. 유아~초등 1학년 1000페이지, 2학년~6학년은 2000페이지, 중학생~성인까지는 3000페이지를 읽으면 완주로 인정된다. 10월~12월에는 000총류부터 900역사까지 책을 편식하지 않고 고루 읽게 하기 위해 '책 읽기 빙고'를 운영하며,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책 읽는 가족과 다독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열고 있다.

그 밖에도 '그림책과 놀아요', '신나는 그림책 세상', 페북아트 '나만의 특별한 그림책 만들기', '넙킨공예', '가족공예', '도자기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캔들 만들기', '작가강연회', '깜짝 영화관', '라이스클레이', '킥타',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부모·자녀체험', '부모교육', '부모 힐링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한 달에 한 번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더욱 풍성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독서동아리도 있다. 중학생 독서토론동아리인 '생각나누기', 도서관 봉사 모임 '나비(나로부터 비롯되는)', 주부독서동아리 '일곱 빛깔', 중년 독서모임 '무지개', 캘리그라피 모임 '어깨동무', 한국사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의 모임 '플레이한국사', '스토리한국사' 등 총 7개의 소모임이 무지개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지개를 찾는 아이들의 독서량은 폭풍 급증, 목포시 17개 작은도서관 중 도서대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책과 사람으로 살아있는 도서관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개작은도서관. 북적북적 무지개 책벌레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담장을 넘어 마을을 행복으로 물들인다.

### 일당백 무지개 관장의 열정 어린 운영

무지개작은도서관이 이처럼 역동적인 운영을 자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경희 관장의 노고가 숨어있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봉사자들과 사회공헌 지원 사업 봉사자, 어린이 이용자들의 어머니가 주축이 된 봉사팀, 학생 봉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도서관 청소부터 장서관리, 프로그램 기획, 섭외까지 고 관장 혼자 책임지고 있다. 누가 봐도 지칠만한 상황. 하지만 고 관장은 도서관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이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한다고 말한다.

“무지개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몸은 힘들지만 마음으로 힘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



서관이 좋고, 도서관을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있어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을 때는 저도 지치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원해주시면 아이들에게 보다 큰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넉넉지 못한 예산. 목포시에서 지원받고 있긴 하지만 도서관 유지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형편이다. 고 관장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곳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도 고 관장이 추진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고 말이다.

무지개작은도서관 사례에서 보듯 관리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도서관은 사람 냄새 폴폴 마을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치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모처럼 야심차게 시작되는 이번 전국 단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단순히 건립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인력과 예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작은도서관이 마을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생명력을 얻기를 바라본다.



Part 02

# 사립 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 데시앙 책올터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사회복지법인 작은도서관 : 생명의전화사회복지관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재단법인 작은도서관 : 열린숲 작은도서관

교회 작은도서관 :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개인 작은도서관 : 토성산맹꽁이작은도서관





## 주민 스스로 일궈나가는 소통형 독서문화공간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

동쪽으로는 구릉산, 서쪽으로는 봉화산이 엄마 품처럼 포근함을 안겨주는 마을 신내동에 가면 사람 냄새, 책 냄새로 정겨운 마을사랑방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이 있다.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은 서울 중랑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한 문화 공간으로 2013년 입주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했다. 개관 이후 단지 내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이자, 아이돌봄터, 문화 향유 창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내며 이용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8:00 (토, 일요일 휴관)

### 주소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신내동, 신내데시앙아파트) 커뮤니티센터 1층

### 문의

전화: 070-8119-0013  
band.us/#!/band/4006505

## 100% 입주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조성된 단지 내 문화사랑방

“선생님~ 저 왔어요”

“민준이 왔구나! 학원 잘 갔다 왔어? 엄마가 전화해달라고 하더라~”

“언니~ 식사하셨어요? 김밥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자기 집처럼 스스럼없이 들어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기 아들, 딸처럼 챙기는 도서관 선생님들. 책울터를 찾은 정겨운 이웃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소통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의 평소 모습이다.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은 100%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다. 2010년 입주 당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을 단지 내 젊은 엄마들이 모여 도서관으로 일궈냈다.

“336㎡(약 102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이 독서실로 할당되어 있었지만, 황무지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와 책 보고 놀 공간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엄마들이 봤을 때 너무 아까운 거죠. 자연스레 도서관을 만들자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가 혼용되어 있는 데시앙 아파트는 소셜믹스라는 단지 특성 상 한 집에 아이 두세 명은 기본, 넷 이상인 집도 많았다. 폐교가 임박했던 신내초등학교가 데시앙 입주 후 과밀학급이 되었을 정도일까? 그럼에도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 아이와 책을 보려면 차를 타고 구립도서관까지 나가야 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절실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한 엄마들의 모임은 금세 30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독서문화공간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다. 이내 도서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실과 주민대표회를 설득해 도서관 건립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임대와 분양 단지가 섞여 있어 소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엄마들의 열정으로 이겨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좀 더 나은 육아환경을 만들자 심기일전 엄마들은 두 팔 걷어붙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직접 나섰죠. 페인트를 사다가 칠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서가와 책걸상을 얻어왔어요. 책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증해주셨습니다. 보시면 하시겠지만 도서관 곳곳 엄마들의 노력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땀과 눈물이 베인 공간이기에 책올터에 갖는 애정 또한 남달라요. 도서관 얘기만 나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터진 적도 있는걸요. (웃음)”

이러한 데시앙 책올터 작은도서관 건립위원회의 노력이 알려지며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성공적인 자생 조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더 큰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데시앙 책올터 도서관. 1,300여 세대가 모여사는 대단지임에도 모범적인 마을공동체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다.

## 단지 내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힘

많은 사람이 모여사는 대단지임에도 소통이 잘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소통의 날’ 덕이 컸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소통의 날이 되면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 그리고 사실상 부녀회 역할을 하는 책올터 운영진이 점심식사를 함께 한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사적인 대화 위주로 이어나가기 때문. 그렇다고 마냥 사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아니다. 모임이 끝날 때 즈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각자의 고민을 톡 꺼낸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다양한 입장이 상충하는 소셜믹스 대단지가 큰 잡음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도 활발하다. 밴드를 이용해 다양한 소식을 주고받는데, 비공개 밴드임에도 800여 명이 넘는 멤버가 참여하고 있다. 아이가 분실한 옷이며,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는 내용, 인근 병원, 교육시설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있는 그야말로 데시앙 입주민의 지식인, 정보 공유의 창이 되어주고 있다.

## 입주민의 ‘정’이 모여 만들어진 든든한 책 올타리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답게 운영 또한 주민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운영비는 주로 아파트관리비 잡수입 중 일정부분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여느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빠듯한 실정이다. 아파트관리비가 도서관에 쓰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주민도 있어 더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모자라는 운영비는 입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자기 아이들이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물품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가끔 운영비 통장에 천원, 이천원이 입금되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



하는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꼬개 보내는 소중한 마음이다. 과자 사먹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꼬물꼬물 고사리손으로 보낸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후원금. 그렇기에 책울터 운영진은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때문에 책울터 운영진은 조금이라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SH공사 주민참여제안사업에 참여하여 영유아존 분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공모사업 덕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제는 마무리였다. 폴딩 도어를 계획했지만 예산이 다 떨어져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쁠 곳은 공동체였다. 바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러자 기적이 펼쳐졌다. 1주일만에 목표예산을 초과하는 돈이 모였다. 놀람과 감사함, 가슴 찡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응원해주는 주민들 덕에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전에도 데시앙 주민들의 힘이 발휘된 적이 있었다. 도서관 공사로 서가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2만여권의 책을 어떻게 다 닦아내야하나 고민했을 때였다. 믿을 곳은 역시 든든한 책울터 가족들이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밴드에 올렸다. 그러자 또다시 기적이 펼쳐졌다. 글을 올리자 마스크를 쓰고, 걸레를 든 이용자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정리를 도왔다. 그러자 언제 다 정리하나 싶던 그 많은 장서들이 일주일만에 다시 깨끗한 모습을 찾았다. 정으로 하나된 데시앙 공동체, 책울터를 든든히 받쳐주는 힘이다.



###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책울터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워낙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 지역 맘카페에서 유명세를 치렀을 정도. 역세권, 숲세권에 이어 책세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데시앙아파트는 책울터 덕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알려지며 지역 내 인기 아파트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데시앙 아이들의 방과 후 스케줄은 으레 책울터다. 이곳에서 책을 보고, 친구들과 놀고, 시간 되면 도서관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에 간다. 그렇기에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만한 프로그램은 서울시 동행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습 보드게임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을 진행하는데, 공고를 올린 지 30분 만에 신청이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동행프로젝트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도서관에서는 최초로 책올더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내년 정식 기관 등록을 위해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시가 있는 나무' 사업에 선정되어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방학이면 아파트 캠프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연말에 다독왕 선발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독서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함께 모여 그림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그 놀이터'가 있다. 그 놀이터 멤버들은 일년에 두 번 뉴스레터를 만들어 도서관을 기록하고, 수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책올더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역사동아리 사잇길 등이 책올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책올더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엄마들의 품앗이 재능기부 수업이 활성화되다 보니 개인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 엄마들 스스로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이는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렇듯 데시앙 책올더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은 물론, 육아로 잠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능력 또한 성장시켜주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데시앙의 책올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 데시앙 책올더 작은도서관은 한지운 관장을 비롯한 단지 내 엄마들의 의지로 운영되고 있다.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 도서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구립도서관 도서를 책올더를 통해 빌려 갈 수 있도록 상호대차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너무 지친다는 점이다. 깊어지고 가야 할 어깨 위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 엄마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가도 도서관을 통해 바르게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얻고, 어려움을 털어내고 있다는 책올더 운영진들. 이들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데시앙의 책올림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본다.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2001년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작은도서관계의 큰형님으로 엄마와 아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주민들은 좋은 책과 만나고, 책 속의 문화를 찾아 누리며, 공동 육아의 장을 마련한다.

### 운영

화~금 10:00~18:00  
토 10:00~16:00 (일, 월 휴관)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매봉18길 11,  
(금호동3가) 마을소통공간 산책 1층

### 문의

전화: 02-2297-5935  
cafe.naver.com/littlelibro,  
band.us/band/68635329



### 자연 속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남산의 끝자락 금호동. 아파트 촌일 것만 같은 이곳에 존재만으로도 휴식을 주는 문화쉼터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이하 책엄책아)가 있다. 응봉근린공원을 마당 삼아 자연과 책을 함께 만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공간. 어머니의 너른 품과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도서관이기에 어린이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어른들은 편히 쉴 수 있다.

책엄책아는 본래 행당동에 위치해 있었다. 2001년 개관 이래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행당동의 마을 공동체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일대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공간을 비워 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각도로 도서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다행히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4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다. 이후 성동구의 도움으로 이용자가 없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노인정 자리를 제공받으며 책엄책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리모델링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지원으로 1층에 어린이 열람실과 교육실을 마련하고, 2층에는 성인 열람실과 북카페를 꾸며 현재의 아늑하고도 포근한 모습을 완성시켰다. 이렇듯 자치단체, 기업, 주민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 일궈진 소중한 공간 책엄책아. 2016년 2월 재개관 이후 행당동을 넘어 금호동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주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책 읽는 엄마와 아이, 가족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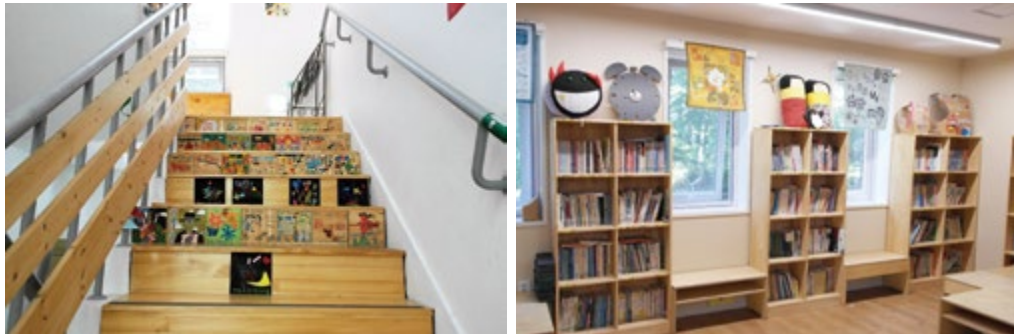
책엄책아의 일주일은 바빠 흘러간다. 아이와 엄마, 도서관을 찾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덕분에 책엄책아에서는 심심하다고 떼쓰는 아이도, 독박육아로 힘겨워하는 엄마도 보기 힘들다. 먼저 1층 어린이실에서는 평일 오후 4시~5시 유아 그림책 문학교실인 '반디학교'가 운영된다. 화요일에는 6세, 목요일에는 7세, 금요일에는 5세반 수업이 있는데, 참여 대기자 명단이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토요일에는 '숲속반디학교'와 그림책으로 놀자, 영화상영회, 꼬마벼룩시장 등으로 구성된 '토요이야기방'이 진행된다.

엄마가 성장해야 아이도 성장한다고 믿기에 여성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매주 화요일에는 초등 아이가 읽으면 좋을 책을 선정하는 '초등책고르미'와 서울시 평생학습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문 상담 강좌 '우리 마을 상담소', 수요일에는 책놀이 활동가로 커나갈 수 있는 '그림책 학교'와 수요일독회 '처음처럼', 목요일에는 성동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자수 강좌 '숲에서 꽃과 나를 기록하다', 금요일에는 자수를 놓으며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바늘 한 땀 인문학', 흥겨운 노래가 있는 '금요 기타 모임' 등이 진행된다.

책엄책아의 프로그램이 이처럼 풍성하면서도 유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쁜 와중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운영진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마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하는 마을 목공방', '마을문화 기획자'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작가가 오다'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책엄책아의 다음 도전은 도서관을 통해 성장한 엄마들이 스스로 공모사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를 통해 도서관도 이용자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마을 속 더 작은 마을을 꿈꾸며

책임책아는 1층 어린이 열람실을 맡고 있는 김선호 관장, 2층 성인 열람실을 책임지는 함정희 사무국장, 카페를 관리하는 정나형 매니저가 각각 업무를 분장해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인력이 도서관 관리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공모사업 신청, 카페 운영까지 도맡고 있다 보니 여느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일손이 늘 달린다. 부족한 손길은 자원활동가와 청소년 봉사자를 상시 모집해 채우고 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는 법. 고마운 마음은 도서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식의 '통화' 선물로 표현한다.

현재 책임책아의 총 장서량은 1만 5천여 권.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다. 매달 50권 이상의 새 책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서는 수요책읽기 '처음처럼' 동아리 회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처음처럼 회원들의 날카로운 도서 선정 덕에 책임책아의 책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가득하다. 육아서와 신간 도서 또한 다양하게 구비해 책 읽는 엄마들의 자기 계발을 돕는다.

장서 관리 측면은 다소 아쉽다. 개관 이후 쪽 파랑새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기호 없이 대분류만 되어 있어 도서 검색이 어렵다. 책임책아 측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시간적,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냉난방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면 회원들이 정기후원과 북카페 수익금만으로는 유지하기에 벽차 운영자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후원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평균 250명 선인 정기후원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달 회원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우선 수강권과 무료 커피 쿠폰 등이 들어있는 도서관 소식지를 발송하고, 연말에는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파티도 준비한다. 재정 자립을 통해 마을 속 더 작은 마을을 꿈꾸는 책임책아의 마음이 마을 가득 전파되기를 바라 본다.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개관 18년차를 맞는 책임책아가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일 것이다. 책임책아는 앞으로 남산 자락에 위치한 환경을 적극 활용, 숲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와 아이라는 모토 아래 생태 관련 장서와 관련 체험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마을 123'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지도를 완성하고, 관련 도서를 추천하는 기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책임책아와 함께 큰 아이들이 어느덧 중고생이 되었다. 청소년의 삶도 들여다볼 책무가 생긴 것이다. 이에 성동혁신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과 함께 하는 '청소년을 위한 작은도서관 사서 체험'을 시작했다. 책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북큐레이션을 맡기고, 공간을 꾸미게 했다. 어린 동생들의 독서 지도를 돕는 활동을 부탁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의 큰형님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펼치고 있는 책임책아.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운영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산 자락의 포근한 안식처로 남길 바라본다.



## 책을 통해 이웃을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를 구심점으로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이곳은 단순 문화시설을 넘어 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골목 문화를 복원하는 마을 중심 사랑방이자 생활 공간 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운영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휴관)

### 주소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생명의전화) 3층 생명가족작은도서관

### 문의

전화: 02-916-9193  
lifeline.egentouch.com

###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하월곡동 희망의 불빛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이하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립한 도서관이다. 생명의 전화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생명가족작은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우려는 사라진다. 유리창 가득 햇빛이 쏟아지는 이곳은 그 어느 공간보다 밝고 포근하다. 도서관 곳곳 느껴지는 따스함.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기에 공간 사이사이 사람의 온기를 채우려 애쓴 결과다.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정적인 도서관이 아니에요. 사람 냄새 폴폴,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입니다. 누구든 내 집처럼 편하게 와서 책을 읽고,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지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한 부분에 머무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1985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하월곡동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이다. 총 6층으로 이루어진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1층 공유놀이터, 2층 어린이집, 3층 생명가족작은도서관, 4층 직업재활시설, 5층 주민모임방, 6층 생명의전화 사무실 등을 갖추고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벗이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의 모태는 인포어린이도서관이다. 1991년 지금의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자리에 조성된 이래 20년간 변함없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자람터로 사랑 받아 왔다. 그러나 개관 이후 한 번도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은 열악해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했다. 리모델링이 절실했지만, 빠듯한 예산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상황. 이대로 도서관 문을 닫아야 하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만났다. 나눔이 나눔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2010년 12월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총면적 183㎡(55평), 열람석 45석, 스크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생명가족작은도서관.

포근한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가부터 신발장까지 천연 원목을 배치해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꾸몄다. 그러자 발길을 돌렸던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복지관 내 위치한 이점을 살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도서관으로 방향을 설정한 점도 주효했다. 그렇게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오랜 세월동안 함께 해온 주민들의 문화안식처가 되어 하월곡동을 밝게 비추주고 있다.

### 사서를 구심점으로 주민이 직접 일궈나가는 '모두'의 공간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심점이 되어주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와 '주민 사서', '사회복지사' 등이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소중한 공간을 일궈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이옥희 사서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문제로 상주하지는 못하고 주 이틀(화요일, 토요일) 근무하는데, 출근하는 날은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일 속에 파묻힌다. 눈앞의 업무를 두고 볼 수 없어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업무를 처리한다.

“도서관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주민사서분들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날 하나라도 더 일처리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요. 화요일,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 도서를 수서하고, 입수된 도서를 분류 목록하고, 시스템에 등록시킵니다. 기증도서도 처리하고요. 도서관의 기동인 동아리 모임도 운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민사서분들과 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도 처리해야 하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이 있어 버티고 있어요. 사람에게 힘을 얻는 공간이 바로 작은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기존에 사용하던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성북구에서 도입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할 때도 이옥희 사서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구축 후 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생성되고, 언제 어디서나 도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도서관 이용자도, 대출권수도 늘었다.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10명의 주민사서가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사서가 출력해놓은 라벨을 도서에 붙이고 서가 정리를 해내는 등 도서관의 실질적 살림을 맡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주민사서들은 주부 9단의 실력을 십분 발휘해, 정확하게 책을 꼽고 깔끔하게 도서관을 가꾼다. 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책놀이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임무도 해낸다. 그야말로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을 구하는 10명의 어벤저스인 셈. 주민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매뉴얼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도 도서관 운영의 한 축이다. 주민독서동아리, 책보수동아리, 주민사서모임, 이렇게 세 개의 동아리가 활약하고 있는데, 독서동아리는 아이들의 책놀이 활동을, 책보수 동아리는 아픈 책의 치료를, 주민사서모임은 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을 돕는다. 혼자라면 절대 못할 일도 이들이 나서면 푹딱 해결된다. 살아 움직이는 동아리가 있어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더 큰 생명을 얻는다. 실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활동가도 도서관 운영의 핵심 인력이다. 평일 오전 도서관 문을 열고, 환경 정리를 전담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몫. 도서관을 내 집처럼 쓰고 닦는 자원봉사활동가 덕에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기복 없이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회계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해준다. 덕분에 사서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각종 행사의 달인인 이들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물심양면 돕는 등 도서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힘이 되어주고 있다. 가히 복지관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혜라 할만하다. 사서가 구심점이 되어 주민 모두가 '함께' 일궈나가고 있는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도서관을 위해 헌신하며 오늘도 하월곡동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

생명가족작은도서관은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도서관 운영 또한 주민 복지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기 프로그램으로는 매월 2, 4주 수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멘토링 '책놀이활동', 매월 3주 '영화데이' 등이 있으며,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인형극,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기도 한다.

가장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연 주민사서가 진행하는 책놀이활동이다. 수업 시간이 되면 사서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책과 독후활동에 집중하는 아이들로 도서관은 북적북적 더 큰 생명력을 얻는다. 최근 6개월간 도서관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 후 구글 폼으로 연결해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보통 공고 30분 안에 마감되곤 한다. 알찬 프로그램을 재료비도 받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이 소문나며 수업 당일 현장 대기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다.

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자체와 KB국민은행의 도움을 받아 사정이 낫긴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편이다. 낡은 도서를 고쳐 쓰는 '책보수'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 책보수 동아리 회원들은 오래되어 찢어지고 파손된 책을 한 땀 한 땀 오리고 긁어내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책보

수 동아리를 이끄는 이는 다름아닌 이옥희 사서다. 출근하지 않는 날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아 동아리 회원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물론 새로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책을 다시 구입하면 그만큼 신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최대한 아껴 쓰려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나은 서가를 꾸리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아이들에게도 아픈 책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이다. 책을 살리는 경험을 통해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에서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화와 '책을 구하는' 책보수 활동이 마치 운명처럼 맞닿아 있다.

개관 이후 기복없는 서비스로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생명가족작은도서관. 앞으로는 이용대상을 확대해 어린이 뿐 아니라 복지관을 주로 찾는 어르신들도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성인도서를 확충하고 있으며, 실버세대도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을 넘어 남녀노소 지역주민 모두가 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날 생명가족작은도서관. 하월곡동의 빛이 될 생명력 가득한 공간의 비상을 기대해본다.







## Work and Life Balance 열린숲 작은도서관

IT 업체가 밀집돼있는 구로 디지털단지에 워라밸 지수를 높여줄 휴식 공간이 생겼다. 빌딩 숲에 마련된 문화 안식처, Work and Life Balance 열린숲 작은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삼성IT밸리운영위원회와 우리도서관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직장인들의 일과 삶을 돕는 평형추가 되어주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9:00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삼성IT밸리 1층

### 문의

전화: 070-7865-1923  
www.facebook.com/forestlib  
bookschool1.blog.me/2209  
92691315

### 도심 속 직장인들을 위한 쉼의 공간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 삶, 그리고 충전에 도움이 되도록 삼성 IT 밸리 운영위원회와 우리도서관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삼성 IT 밸리 1층 로비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카페를 연상케하는 깔끔하고도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있다. 빌딩 속 지혜의 숲을 표방하는 도서관답게 숲을 형상화한 서가와 책장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구로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삼성 IT 밸리 입주사 임직원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작은도서관으로, 개관 이후 하루 평균 70명 이상이 찾아 만큼 구로디지털 IT 단지의 문화 오아시스이자 자기 계발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 보르헤스의 돋보기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보르헤스의 돋보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르헤스의 돋보기란 우리도서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서들을 위한 현장 수서의 명칭으로 출판사와 도서관이 만나 신간을 소개하고, 출판계의 흐름을 파악하여 숨어있는 좋은 책을 찾는 수서전이다. 행사 한 번에 동원되는 도서는 보통 500여 권. 우리도서관재단 측은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출판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책들을 이왕이면 가치있게 쓰고 싶었다. 수백여 권의 신간 도서를 공유성을 띤 방식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아예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졌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마침 입주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삼성 IT 밸리 측과 의견의 합치되었다. 2개월 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행하던 1층 로비가 열린숲 도서관으로 재탄생됐다. 보르헤스의 돋보기 덕분에 열린숲 작은도서관에는 늘 신간이 가득, 서점 못지않은 새 책 진열 속도를 자랑한다. 이것이야말로 열린숲 작은도서관의 무기일 것이다.

“열린숲 작은도서관에는 헌 책이 없어요. 새책 펼쳐보는 기분이 좋아 점심시간마다 들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도, 아니 일 년에 책 한 권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권 씩은 읽는 것 같아요. 회사 1층에 소중한 공간이 생겨 정말 좋습니다.”

열린숲 작은도서관의 기본 테마는 ‘일, 삶, 충전’으로 건강한 삶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았다. 북큐레이션 섹션을 별도로 마련해 매월 2~3회 일, 삶, 충전을 위한 도서를 선정하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북큐레이션이 돋보이도록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 점 또한 눈에 띈다. 도서관의 인테리어의 핵심은 바로 ‘책’이라는 생각으로 북큐레이션 시 표지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표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방해하지 않고자 바코드를 장서 뒤에 붙인다.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경제서, 자기계발서, 문학도서의 대출 비율이 높으며, 퇴근길에 자녀들의 책을 빌려 가는 경우가 많아 그림책에 대한 요구도 많은 편이다.





### 도서관 + 북카페 + 서점의 장점을 모은 혁신적인 책 공간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 북카페, 서점의 장점만을 모은 혁신적인 책 공간으로, 이용자의 휴식과 문화 충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먼저,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공간 안에 음악을 채웠다. 도서관보다 북카페가 편한 세대들을 위한 배려다. 덕분에 도서관을 처음 찾은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책 풍경 속에 스며든다. 또한, 열린숲 작은도서관은 제약 없는 도서관을 추구한다. 노트북을 들고 와 업무를 진행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된다. 흘리지만 안는다면 커피를 들고 들어와도 상관없다.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웬만한 것은 허용되는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주어진 공간을 활용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목에 사원증을 건 직장인들이 간단히 점심을 먹고 쉬러 도서관을 찾는다. 탁 트인 공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책을 보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각자 방법대로 자신만의 에너지를 충전 한다.

그동안은 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느라 전력질주 해왔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집중할 생각이다. 인근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견학프로그램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브런치 특강, 플라워 강좌 등이 기획되어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일에서 잠시 벗어나 책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린 숲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문화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며 불편하셨던 점, 좋았던 점, 원하시는 점 모두 카카오톡을 이용해 알려주세요. 소통이야말로 도서관의 성장 동력이니깐요.”



## 인천 중구 어린이들의 꿈 공작소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은 인천 내에서도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중구에 위치한 최초의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지역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한 인천제2교회에서 사회 공헌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누구나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은 부족한 공립도서관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 내 독서문화를 책임지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 운영

화~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26번길 41

### 문의

전화: 032-880-5271  
cafe.daum.net/ggoomnarae

### 도서관 불모지에 꽃 핀 책과 문화의 씨앗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한 인천시 중구 도원동 일대는 개발의 손이 미처 닿지 않은 구도심으로 문화적 혜택이 미흡한 지역이었다. 율목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2km가 넘는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쉽게 방문할 수 없었다. 도서관 불모지나 다름없는 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놀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70년 역사의 지역 터줏대감 인천제2교회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될 도서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후 상황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준비를 위해 모였고 그렇게 도서관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많은 이들의 힘이 모인 결과 2010년 11월 마침내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장소는 교회 교육관 7층 유희공간을 활용했다. 교회의 재정적 인력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개관 이후 어린이에게는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중구지역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삶의 여유와 의미를 찾는 행복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은 201㎡(61평)의 규모에 11,000여 권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갖춘 큰 규모의 작은도서관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공간 구석구석 세심하게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어린이도서관답게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아동열람실이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밝은 서가와 폭신평신회 중앙 원형 소파가 반갑게 맞이한다. 엄마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열람실, 영유아 열람실과 수유실, 원화 및 작품 전시공간,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공간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책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5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화전시와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상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독서지도 및 책놀이, 주말 영화 및 빛그림 상영, 방학 특별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꿈나래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독서 모임으로 연결된다. 1주일에 1권씩 책을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부독서동아리', '꿈 향아리 청소년 독서토론', '인형극단 J', '실버 은형극단 꿈나래' 등이 꿈나래를 대표하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동아리로는 '실버인형극 동아리 꿈나래'를 꼽을 수 있다. 인형극동아리 양성과정을 수료한 실버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형극 동아리 꿈나래는 재미난 동화와 구수한 옛이야기를 다양한 형태의 인형극으로 재탄생시키며 공연문화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도서 대출반납 체험, 빛그림 공연과 독후 활동 등의 알찬 커리큘럼으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도서관 견학 후 엄마 손잡고 꿈나래를 다시 찾는 비율도 높은 편. 10명 이상 단체의 견학 가능하며 2주 전에 예약하면 된다. 아이들의 독서습관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꿈나래 독서왕 독서그래프' 또한 인기 만점. 날이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드는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을 형성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완독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선물을 나눠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공헌의 차원에서 강사비나 재료비 등을 일체 받고 있는 않는 것. 아이들이 돈이라는 장벽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교회 차원의 지원과 뜻있는 봉사자들이 힘을 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2010년 개관해 어느덧 9년째를 맞은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이 맘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재해주길 기대해 본다.



## 동화 같은 숲속 책 세상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

충남 서산시 토성산 자락에 위치한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은 건립에서 운영까지 순수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안세영 관장의 평생 꿈이 집약된 곳으로 설계부터 내부 서가 하나하나까지 신경써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책 세상을 완성시켰다. 토성산의 아이들은 맹꽂이작은도서관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고 책과 가까이하며 푸르른 꿈을 키워나간다.

### 운영

화~토 10:00~17:00 (일, 월 휴관)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토성산길 29-6, 토성산맹꽂이 작은도서관

### 문의

전화: 041-661-1026

###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가꾼 숲속 책 쉽터

충남 서산시 인지면 토성산 자락을 오르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동화 같은 공간이 등장한다. 잘 가꿔진 펜션 혹은 별장인가 하고 보니 ‘도서관’이라는 팻말이 반갑게 인사하는 이곳. 오늘의 주인공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이다.

맹꽂이도서관은 초입부터 여느 도서관과는 사뭇 다르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오르다 보면 이내 연못이 나타나고 그 옆으로 염소, 고양이, 고라니 등이 살고 있는 동물농장이 고개를 내민다. 도서관에 가는 길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운영자의 배려가 돋보이는 지점.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꾸민 이는 누구일까?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안만복 초대면장의 손자인 안세영씨가 2016년 가을 개관한 도서관이다.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평생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사재를 털어 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은 제 평생 꿈이기도 하지만 이곳 어린이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운영하기 벅찰 때도 있지만 첫 마음 잊지 않고 힘을 내어 도서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맹꽂이작은도서관에 들어서면 누구나 ‘와~’ 하는 감탄을 연발한다. 복층으로 층고가 높고 사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안 관장이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는 원목 서가의 따듯함이 더해져 내 집 서재 같은 편안함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 감성을 자극한다.

맹꽂이작은도서관은 자유로운 도서관을 지향한다.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뒹굴뒹굴 누워서 책을 봐도, 마음대로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녀도 괜찮다.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면서 책을 봐도 상관없다. 책을 읽고 상상의 나라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종이와 색연필도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맹꽂이도서관만의 운영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덕에 개관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인지면의 소문난 명소로 손꼽히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의 ‘맹꽂이’는 윤승운 작가의 역사 만화 ‘맹꽂이 서당’에서 따온 이름. 서당을 배경으로 훈장과 학동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 어쩐지 맹꽂이작은도서관과 묘하게 어울린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18년 8월에는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회에서, 11월에는 화성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다. 이들은 잘 가꾸진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을 둘러보고 감탄하며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복합문화공간

토성산맹꽂이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책을 읽으며 동물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며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견학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





치원에서 단체로 견학 왔다가 맹공이의 매력에 반해 엄마 손잡고 다시 찾는 어린이들도 상당 수다. 덕분에 서산 지역 맘 카페를 중심으로 핫플레이스로 입소문 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맹공이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산시 문화사업단 '문화잇썬'의 제의로 그림책을 읽고 우산 꾸미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고정적인 운영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재정적 자립도가 낮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올 여름에는 연일 지속되는 불터위에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임시 휴관을 결정하기도 했다. 안관장이 사비를 털고 운영위원과 개인 후원자들이 힘을 보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에



어낀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였다. 그렇다고 맹공이를 찾는 아이들이 헛걸음하게 할 수는 없는 일. 휴관임에도 도서관 문은 열어놓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관 아닌 휴관인 셈이다.

어렵게 꾸려가는 작은도서관이지만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안 관장의 표정은 밝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생각이다. 올해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서관 뒤편 나지막한 산과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토성산을 밝게 비추는 맹공이작은도서관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터. 정기적인 후원과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체 모델 찾아 운영비 걱정 없이 나래를 펼칠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Part 03

# 기타

테마가 있는 작은도서관 :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 기부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지하철 내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

## 전망 좋은 작은도서관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국 6,600여 개의 작은도서관 중 낭만과 사색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 줄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을 추려보았다. 바다와 책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이 소박한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이다.

### 부산 '해운대세계작은도서관'

해운대세계작은도서관은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관광시설사업소 2층에 자리한 북카페형 도서관이다. 지역 주민 및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와 책이 마음의 풍요를 이끌어낸다. 세계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전세계 각국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독서와 바다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해운대세계작은도서관으로 책 여행을 떠나 보자. 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해운대관광봉사센터  
문의 : (051)749-5733

### 동해 '등대작은도서관'

등대작은도서관은 동해시 묵호등대 인근 묵호동주민센터 2층에 자리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2층 쉼터에서 바라보는 동해바다와 묵호항 수변공원, 논골담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2층에 알록달록 유아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즐기기도 안성맞춤. 여행자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다.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월요일은 쉼다.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논골길 78, 묵호동주민센터 2층  
문의 : (033)535-5162

### 제주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협재해변과 비양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 마을 금능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을 나서면 드넓게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해변이 마음에 평화를 안겨준다. 꿈차롱은 꿈을 담은 함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금능 아이들이 도서관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여행자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월~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위치 :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금능길 39  
문의 : (064)796-1941 (<http://cafe.daum.net/ggoomcharong/>)

### 울산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

바다가 보이는 작은도서관은 울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치한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으로 2013년 울산시 작은도서관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원목 서가와 통유리창 가득 들어오는 햇살,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따뜻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문의 : (052)251-7923

### 거제 '남부면 작은도서관'

남부면 작은도서관은 거제도 최남단 남부면사무소 2층에 자리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별다른 것 없는 면사무소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창 너머 펼쳐지는 거제 바다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신비로움을 안겨 준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남부면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면사무소와 동일하다.



위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남부해안로30 남부면사무소  
문의 : (055)639-6537

### 포항 '두호동 책이랑바다랑'

포항 책이랑바다랑은 두호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책과 바다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으면 SNS 속 전망 좋은 카페가 부럽지 않다. 평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하는 점이 다소 아쉽다.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삼호로 260, 두호동 주민센터 2층  
문의 : (070)7730-5119

##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도서관 만들기 기부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는 기업이나 재단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커나가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한 조직이 가진 책무일 터. 아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마을 사랑방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사회 공헌의 값진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기부로 만들어진 도서관 현황을 살펴본다.

### KB '작은도서관'

KB작은도서관은 KB국민은행, 문화체육관광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손잡고 전국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69개의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방부와의 협약으로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군부대 도서관도 건립하고 있다. 도서관 가구를 모두 원목으로 제작,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개관 후에도 문화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지원해 기업 후원 작은도서관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 아이,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월담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KB 작은도서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slibrary/220817340502>

###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아름인 도서관은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공익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내에 독서공간을 조성하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0년 서울 관악구 미성동 '참좋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아동병원 등에 2017년까지 470개소를 개관하고 57만 권의 도서를 지원했다. 이 중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5개관이다. 고객들의 소액기부(포인트 및 카드결제)가 일정금액에 이를 때마다 고객의 이름으로 원하는 곳에 아름인도서관을 지어주고 있기도 하다. 개관 후에도 시설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을 파견해 만족도가 높다. 경기 시흥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 아름인작은도서관, 서울 송천아름인지역아동센터 내 송천 아름인 도서관 등이 있다.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https://arumin.shinhancard.com>  
 아이들과미래재단 [http://www.kidsfuture.or.kr/contribute/biz\\_info\\_detail.php?bp\\_seq=73](http://www.kidsfuture.or.kr/contribute/biz_info_detail.php?bp_seq=73)

###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은 롯데홈쇼핑이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협력하여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학습 공간을 구축하는 희망 나눔 활동이다. 주로 지역 아동 센터 시설을 친환경으로 개선하고 책을 기부해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관 후에는 해당 지자체나 복지센터 등에서 시설을 관리한다. 2013년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건립 중인 2개소가 완공되면 전국 60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언니네 작은도서관, 생명나무 어린이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롯데홈쇼핑 공식블로그 <http://blog.lottehomeshopping.com>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도서관'

초록우산 작은도서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만든 독서 공간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에 10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초록우산 도서관 <http://welfare.childfund.or.kr/inBiz/childLibrary.do>

### 팬클럽의 힘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 유노윤호 작은도서관 'HUG'

유노윤호 작은도서관 'HUG'는 K-POP 그룹 동방 신기 멤버인 유노윤호를 사랑하는 한·중·일·대만 4개국 팬클럽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성한 공간이다. 유노윤호의 고향에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4개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광주시의 도움으로 2018년 6월 30일 개관할 수 있었다. 광주시 광산구 복합예술공간인 소촌아트 팩토리 내에 위치, 사람과 책, 예술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문화예술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촌아트팩토리 <https://soartfactory.blog.me/>

### 사회복지NGO 러빙핸즈 '초록리본도서관'

초록리본도서관은 아동 청소년 멘토링 전문 사회복지NGO 러빙핸즈가 1018(만 10세~18세) 세대를 위해 설립한 대안공간이다.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책과 사람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그우먼 김지선씨가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김지선아줌마와 함께 책읽기' 등을 진행한다.



러빙핸즈 초록리본도서관 <http://www.lovinghands.or.kr>

## 도서문화재단씨앗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프로젝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독서 진흥 사업을 기획하는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시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와 협업하여 마을의 책 읽는 문화 확산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민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돕는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초롱이네도서관, 팔판작은도서관 등이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서문화재단씨앗 <https://seeart2007.modoo.at/?link=f0vcn7vt>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http://smalllib.org/project/center/>

## 책이 있는 스마트한 출퇴근길 만들기 지하철에서 만난 작은도서관



일상을 나르는 지하철 숨은 공간 곳곳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우리의 생활 동선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지하철에서 만난 6개의 작은도서관'을 정리했다. 이제 도서관이 멀어 책 못 보겠다는 푸념은 넣어둘 것.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난 작은도서관이 일상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 강남구청역 '열린도서관'

열린도서관은 7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 위치한 강남구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은 휴대폰 대신 책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서관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간다. 높은 접근성으로 상호대차서비스 이용도 많은 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포바타워 지하 2층 스마트정보관 내  
전화 : 02-6004-3970

### 금촌역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있는 파주 최초 역사 내 작은도서관이다.

다문화 특성화 도서관이기도 한 이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도서가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토, 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동) 금촌역사 내  
전화 : 031-941-2958

### 상동역 '상동역칙칙폭폭도서관'

상동역 1, 2번 출구와 3, 4번 출구 사이로 내려오다 보면 작지만 알찬 독서 쉼터, 상동역칙칙폭폭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좌석수는 10여 석으로 소규모지만 부천시 관내 상호대차서비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은 쉰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지하 1층  
전화 : 032-625-4786

### 정자역 '정자역 작은도서관'

정자역 작은도서관은 분당선 정자역에 자리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대한민국 최초 지하철 역사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문을 연 후 분당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으며 지역독서문화를 책임지고 있다. 평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대로 지하 333번지  
전화 : 031-729-4853

### 신중동역 '신중동역칙칙폭폭도서관'

'신중동역칙칙폭폭도서관'은 '상동역칙칙폭폭도서관'에 이은 부천 역사 내 두 번째 작은도서관으로 7호선 신중동역 4,5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만화의 도시 부천답게 코믹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잡지 13여 종을 구비하고 있기도 하다. 깨끗하고 안락한 인테리어로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좋은 장소로 입소문 나기도 했다.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지하 314, (중동) 7호선 신중동역  
전화 : 032-625-4787

### 대구 '사월역도서관'

사월역도서관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사월역에 자리한 책 공간으로 대구시민, 사업장이 대구인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거점 용학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도 하다.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평일 낮 12시에서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소 : 대구 수성구 사월동 406-2 사월역 지하 1층  
전화 : 053-792-8582

## 대한민국 작은도서관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 작은도서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오랜 기다림 끝에 골목문화 복원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전국 6,500여개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생활 SOC 중점사업으로 부각되며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숨어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있는 활동을 전개하며 작은도서관의 토대를 일군 대표적 비영리 민간단체 세 곳을 소개한다.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간단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 새로운 책문화 및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국 10개 지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돕기 위해 운영 관련 교육과 워크숍,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고 인력 재교육 및 양성에 힘쓴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도서관의 연구와 포럼 진행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정책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사업을 통한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정책연구,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변화와 성장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작은도서관 문화가있는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등 굵직한 사업을 맡아 작은도서관 운영진과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문의 : (02)388-5933, <http://smalllib.org/>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대한민국 독서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7년 한국사립문고협회로 시작한 단체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허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뿌리독서운동이라는 공통 꿈을 가진 1,500여 개의 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이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책을 읽는 그날을 위해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의 토대 마련을 위해 그동안 사랑의 도서보내기 운동,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운영자 교육, 전국작은도서관대회, 해외작은도서관만들기, 독서지도사, 그림책지도사 양성교육 등을 주관해왔으며, 현재는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LH 임대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며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다.

문의 : (02)582-2584, <http://www.reading.or.kr>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1987년 설립된 작은도서관 대표 민간단체 중 하나다. 문화소외지역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전국 산간벽지에 300개가 넘는 학교마을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개설해왔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건립한 도서관은 이용자를 먼저 생각한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향후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도록 친환경 원목서가를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개관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 책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그려나가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이와 같은 공을 인정받아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제작 등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앞장 서 온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현재는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의 : (02)515-1178, <http://smalllibrary.or.kr/>

## 작은도서관 관련 정보가 한 곳에!

###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막막함을 느낀다면? 작은도서관 관련 정보가 총망라되어있는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의 문을 두드려보자.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가들이 바른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흩어져 있는 전국 6,500여 개의 작은도서관 검색, 주요 사업 및 이슈의 발 빠른 입수, 작은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작은도서관 운영자 네트워크 형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추천도서와 프로그램 정보 습득 등이 있다. 질문과 답변 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세한 사항은 [www.smalllibrary.org](http://www.smalllibrary.org) 를 참고 하면 된다.

## 2018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19. 3.

기획 변현주

취재, 글 김세진

발행인 김수연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mailto: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 smalllibrary.or.kr](http://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0-3

